

문서번호	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
보존기간	년
결재일자	2016.04.25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

★주임	금융복지팀장	공공협력본부장		
이유정	장인복	전결 04/25 송성숙		
협조				

2016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2.0 추진위원회 1차 회의 결과보고



1차 자문회의 결과보고

I 주요 개요

- 일 시 : 2016. 4. 20(수) 10:00~13:00
- 장 소 :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8층 교육장, 인근식당
- 참석자 명단 : 총 15명

연 번	성 명	소 속	직책
1	권정순	서울시	민생경제자문관
2	양호경	서울시 민생경제과	주무관
3	백주선	법률사무소 상생	변호사
4	이헌욱	법무법인 로텍	변호사
5	장동호	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	교수
6	이범승	희망나무	원장
7	이동주	전국중소상인연합회	사무국장
8	심정원	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	관장
9	김진회	청년은행토닥	이사장
10	송성숙	서울시복지재단 공공협력본부	본부장
11	장인복	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	팀장
12	오문준	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	대리
13	이유정	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	주임
14	장유진	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	주임
15	최진건	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	상담사

주요내용

-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입법에 따른 서울금융복지센터의 대응책과 역할 재정립 방안
- 2016 세부사업 추진 계획 논의 등

1.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입법에 따른 서울금융복지센터의 대응 책과 역할 재정립 방안

□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입법 배경안

- 휴면예금재단에 관한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안으로 입법
- 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금융기능과 채무조정 기능의 통폐합

□ 문제점

- 독점기업화 논란
- 금융기능과 채무조정 기능을 함께 가져갈 경우 채무조정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함
 - 경기도의 경우 금융기능을 강화하여 채무조정 기능이 취약하였음. 하지만 실제 오는 이용자들 대부분은 빚 때문에 오는 경우여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 불균형 초래

□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역할 및 방향성 논의

-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충분히 활용하고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구축 모색 (★ 향후 제윤경 대표와의 논의를 통해 방안 마련)
 -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센터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 - ※ 서민금융진흥원 예산으로 우리가 활용가능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관건

○ 예방적 금융복지사업에 활성화 필요

-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복지에 초점을 두고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에 초점을 둠 : 이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 될 수 있음
-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예방이며 관련 금융교육을 통해 지원
- 추가적으로 1대1 상담과 코칭을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함

○ 저소득 취약계층 채무자의 자립생활 지원

-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복지 · 주거 · 고용 ·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채무조정 이후의 자립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

○ 상담이라는 전문영역에서 벗어나야 함

- ‘서울금융복지센터’나 ‘서울서민금융안정센터’로 개명 고려 필요
- 교육, 상담, 멘토링, 코칭, 치료, 자산형성지원, 캠페인 등 전문 영역 확장과 세분화 그리고 관련 인력 확보가 중요

○ 접근성 제약의 한계를 벗어나야 함

-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 : 대학생활경제설계, 취업 준비 등
- 중소기업과 연계한 저임금 취업청년 금융복지 프로그램 추진 필요
- 미국처럼 지자체 인턴쉽 프로그램과 자산형성 프로그램 연계 가능

○ 직원 역량강화 지원 필요

- 해외 연수를 통한 선진 금융복지 프로그램 벤치마킹
- 집단별 · 문제별 세분화된 접근이 가능한 금융복지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
- 지속적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무자-연구자 네트워크 운영 필요

○ 새로운 전환 필요

-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존속이 어려울 수 있음
 - ※ 충남가계금융역량강화사업의 경우 2억 예산으로 교육+상담+자산형성을 함께 수행하며 대전과 전북으로 확산하려는 과정에 있음
- 지역센터 위탁방안이나 인력 운영의 탄력적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

2. 2016년 세부사업 관련 논의

금융복지 제도개선 추진

- 금융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역할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제2의 미소금융이 되지 않도록 해야함

가계부채 예방 프로그램 운영

- 사회복지 종사자나 대학생 대상 가계부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집체교육이나 특강은 한계가 있음
 - 실습과 적용 그리고 사례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만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
 -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가계금융역량강화사업처럼 개별 신청기관에서 장기적·포괄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만족도 이상의 성과 실현

금융복지 솔루션위원회 운영(사례회의)

- 매우 효과적인 사업으로 클라이언트의 소비와 금융 문제에 대한 개입과 관련해 상담사에게 긍정적 경험과 자신감 부여 가능
 - 상담사의 사례관리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야 사업이 성공

금융복지 성과분석 연구

- 데이터 축적이 센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
 - 패널조사 혹은 통시적으로 조사 가능한 성과분석 연구로 구조화 해야함
 - 자료적 가치가 높을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가 되어야 함

○ 지표 개발이 관건

- 영국, 미국, 일본의 금융복지 연구 지표를 참고하여 논리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구성되어야 함
- 동기분석이 가능한 심리사회적 변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- 예상 결과 및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조사 구조를 만들어야 함

III 향후 일정 및 공지사항

- 솔루션 회의 개최 : 4/27(수), 5/9(월)
-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월례회의 개최 : 5/3(화)
- 가계부채 예방을 위한 대학 특강 : 5/11(수)

II 관련 사진

